

비중이 높은 항목은 10수당 12,011원으로 전체 생산비중 59.5%를 차지하였다. 두 번째는 가축비(4,157원)로 20.6%를 차지하였다.

<표 3-3-50> 육계농가의 최근 5개년 기준 생산비 세부항목의 비중

(단위 : 원/10수)

순위	세부항목	금액	비중
1순위	사료비	12,011	59.5%
2순위	가축비	4,157	20.6%
3순위	자가노력비	863	4.3%
4순위	수도광열비	860	4.3%
5순위	상각비	757	3.8%
6순위	방역치료비	470	2.3%
7순위	제재료비	342	1.7%
8순위	고용노력비	205	1.0%
9순위	기타잡비	134	0.7%
10순위	차입금이자	116	0.6%
11순위	수선비	107	0.5%
12순위	자본용역비	106	0.5%
13순위	임차료	37	0.2%
14순위	토지자본이자	9	0.0%
15순위	소농구비	8	0.0%
합계		20,182	100.0%

육계 농가의 경우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 중 사료비, 가축비, 수도광열비, 제재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자가노력비, 상각비, 방역치료비는 감소하였다. 그 중 수도광열비의 증가폭이 4.4%로 가장 큰 반면 자가노력비는 연평균 변화율이 -1.7%로 감소하였다. 2015년의 경우 2014년도에 대비하여 7개 항목 모두 감소하였다.

<표 3-3-52> 육계 농가의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분항목의 변화율

순위	구분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/10마리)	비중	5개년 평균	2014vs2015
1위	사료비	12,011	59.5%	0.5%	-10.3%
2위	가축비	4,157	20.6%	2.3%	-8.6%
3위	자가노력비	863	4.3%	-1.7%	-13.5%
4위	수도광열비	860	4.3%	4.4%	-24.7%
5위	상각비	757	3.8%	-1.6%	-37.8%
6위	방역치료비	470	2.3%	-0.7%	-7.7%
7위	제재료비	342	1.7%	3.8%	-5.1%

산란계의 경우도 육계와 유사하게 상위 7개 항목의 비중이 전체 생산비의 약 95.5%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 사료비 비중이 생산비의 56.6%로 가장 높았다(표 3-3-51).

산란계 농가의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을 살펴보면, 7개 항목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제재료비(8.4%), 자가노력비(8.0%)의 증가폭이 크다(표 3-3-52). 한편 2014년도 대비 2015년은 육계 농가와 유사하게 7개 항목 모두 감소하였다.